SAMSUNG 삼성전자 '고화질 TV 大戰'… AI로 전선 확대 LG전자

〈인공지능〉

초고화질 넘어 인공지능 맞대결

삼성전자 빅스비 탑재 라인업 선봬
LG전자 'AI 씽큐 올레드' 전면에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TV사업 경쟁에서 화질을 넘어 인공지능(AI) 기술로 전선을 확대한다.

초고화질 TV만으로는 소비자에게 새롭게 다가갈 수 없다는 판단아래 AI로 진화된 TV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7일 뉴욕에서 '2018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 TV 글로벌 론칭'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에 선보일 모델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완벽 블랙'을 구현하는 2018년형 QLED TV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 QLED TV는 LCD에 들어간 백라이트(후광장치) 특성상 빛샘 현상으로 깊은 블랙을 구현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특수필름인 '퀀텀블랙필터'로 완벽한 블랙을 구현하는 QLED 신제품을 내놓고 화질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여기에 올해 초 소비자가전쇼(CES)에서 공개한 인공지능 플랫폼 '빅스비'가 탑재된 TV를 비롯해 AI로 화질 변환되는 제품, 컬러볼륨을 개선한 제품 등 65인치 이상 대형 라인업을 대거 선보인다.

특히 2018년형 TV에 적용되는 빅스비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는 빅스비를 통해 음성만으로 단순한 채널 이동은 물론 날씨 등 생활 정보를 얻거나 특정 앱을 지정해 콘텐츠를 검색할 수도 있다. "지금 감상 중인 사진을 TV 화면에 맞춰서 표시해줘"와 같이 심화된 명령도 가능하다.

통합된 '스마트싱스 앱'으로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복잡한 로그인 과정 없이 초기 TV 세팅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즐기던 콘텐츠를 한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AI 브랜드 '씽큐(ThinQ)'를 적용한 'AI 올레드(OLED) TV'로 시장 확대를 노린다.

LG전자의 OLED TV는 백라이트 없이 디스플레이 화소 자체가 빛을 내기 때문에 칠흑 같은 검정색으로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OLED TV의 이 같은 화질 경쟁력에 AI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올레드 TV를 전면에 내세운다.

AI 올레드 TV는 자연어 음성인식 기능을 적용, 말 한마디로 화면모드 변경, 채널 변경, 볼륨 조절 등 다양한 TV 기능을 손쉽게 제어한다. TV와 사운드바, 블루레이 플레이어, 게임기 등 다른 기기와도 간편하게 연결한다.

또 스스로 최적의 화질로 바꿔주는 인공지능 화질엔진 '알파9'을 탑재해 보다 완벽한 올레드 화질을 제공한다.

알파9은 영상을 분석해 4단계로 노이즈를 제거하고 배경과 사물을 분리한 후, 각각 최적의 명암비와 채도, 색감을 분석해 일반 TV 대비 컬러를 7배 더 세밀하게 조정한다.

LG전자 HE해외영업그룹장 박형세 전무는 "인공지능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올레드 TV를 더 많은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영업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車업계, 설 연휴·수출 감소로 2월 실적 '고전'

판매실적 전년동기 대비 9.84%↓
'철수설' 한국지엠, 전년 比 반토막

국내 완성차 업계가 2월 설날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영향에 내수와 수출 등 전체 판매량이 감소했다. 특히 한국지엠의 지난달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반토막났다. 반면 쌍용자동차는 내수 3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4일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2월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들의 2월 총 판매대수는 56만7919대로, 전년 같은 달보다 9.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월 내수 판매량은 10만5432대로, 전년 같은 달보다 11.85% 줄었으며 해외 판매는 46만2487대로, 9.37% 감소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 1위 현대차는 설 연휴로 인해 조업 일수가 줄어든 데다 중국 시장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아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대비 8.1% 감소한 총 31만148대를 판매했다. 국내(5만200대)는 5.5%, 해외(25만9948대)는 8.6% 줄었다.

차종별로는 그랜저가 8984대 판매되며 국내 1위를 지켰다. 지난달 말 출시한 신형 싼타페는 누적 계약 1만8000대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내수 판매는 싼타페 효과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기아차는 지난달 국내 3만7005대, 해외 15만8957대 등 총 19만5962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해 총 판매량이 9.1% 줄었다. 국내 인기 모델은 쏘렌토(5853대), 모닝(4560대), 봉고III 트럭(4411대), K5(3840대) 등 순이었다.

기아차는 지난달 출시한 준중형 세단 올 뉴 K3가 돌풍을 예고한 만큼 다음달 국내 판매 회복이 예상된다.

쌍용차는 지난달에 총 9090대(내수 7070대, 수출 2020대)를 판매했다. 렉스턴 스포츠 신차효과에도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와 수출 물량 축소로 인해 전체적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선 16.0% 감소한 수치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5.5% 줄었다. 내수 판매의 경우도 지난해 2월과 비교해 12.8% 감소했지만 한국지엠을 앞질렀다.

한국지엠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내수 판매가 전년 대비 48.3% 급감하면서 5804대에 그쳤다.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한국지엠의 '철수'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수출은 3만921대로 전년 대비 9.4% 줄었다.

르노삼성은 국내 완성차 5개사 가운데 내수 5위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판매가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22.3% 줄었다. 르노삼성은 설 연휴로 전년 대비 조업 일수가 5일 줄어들어 내수와 수출 모두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완성차 업체들은 "설 명절의 영향으로 1월에 연휴가 있던 전년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판매가 감소했다"며 "조업일수 감소 영향도 컸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똑똑 노크하면 냉장고 안이 한 눈에"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확대 적용
문 여닫는 횟수 줄여 냉기 유출↓

LG전자가 프리미엄 냉장고에 '노크온 매직스페이스'를 확대 적용하고, 시장 공략에 가속도를 낸다.

LG전자는 4일 노크온 매직스페이스를 탑재한 607L 용량의 LG 디오스 양문형 얼음정수기냉장고(모델명: J610SS75·**사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국내 출시된 양문형 냉장고 중 노크온 매직스페이스가 적용된 제품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크온 매직스페이스는 신개념 수납공간인 '매직스페이스'에 '노크온' 기능을 결합한 혁신 기능이다. 사용자가 매직스페이스 전면 도어를 두 번 노크하면 냉장고 내부 조명이 켜져 보관중인 음식물의 종류와 양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노크온 매직스페이스는 LG전자가 2016년 3월 국내 출시한 초프리미엄 'LG 시그니처' 냉장고에 처음 탑재된 이후 지난 해 7월 'LG 디오스' 상냉장·하냉동 냉장고에, 이번에는 양문형 냉장고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 기능은 냉장고 문을 여닫는 횟수 중 절반 이상이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식품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개발됐다. 회사 측은 "노크온 매직스페이스로 사용자가 문을 여닫는 횟수를 최소화해 냉기 유출을 47%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년 무상 보증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를 탑재해 뛰어난 에너지효율을 갖췄다. 스마트폰의 '스마트씽큐' 앱을 통해 냉장·냉동 온도 등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가격은 출하가 기준 310만원이다.

/정은미 기자

'U+우리집AI'로 달라진 시각장애인 가족

LG유플러스 유튜브 영상 공개

LG유플러스는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을 U+우리집AI 서비스를 통해 따뜻한 기술로 다가간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영상에는 실제 1급 시각장애를 가지고 8개월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조현영씨(39)와 아들 최유성군이 출연해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생활 속 불편함과 U+우리집AI 서비스로 달라진 생활상을 표현했다.

영상 속에서 조현영씨는 U+우리집AI와 함께 훨씬 쉬워진 육아를 경험하게 된다. U+우리집AI는 유성이의 끼니와 약 먹을 시간에 대한 알람을 음성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 유성이를 돌보는 와중에도 미세 먼지 농도 정보를 확인하고 실내 환경을 말 한마디로 동시에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영상의 주인공인 조현영씨는 "시각장애를 가진 부모로서 아이에게 늘 더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U+우리집AI 서비스로 아이와 더 많은 교감을 나누고 일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영상은 LG유플러스가 작년 연말부터 실제 시각장애인들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스마트기술 이용에서 그들이 소외된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LG유플러스 광고 한 장면. /LG유플러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를 통해 시각장애가정 500가구에 U+우리집AI를 제공하기도 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제53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3월7일~3월29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3월10일~3월31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3월 18일(일), 3월25일(일), 3월27일(화)
리더스옥션
※사전 수강 신청 필수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521-9111(강남역 5번출구)